

건강 칼럼

심장판막 질환

**우 ▲ 판막 질환이란?**  
 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판막 질환이란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작용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기능적으로 판막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를 '협착증'이라 하고 반대로 열리지는 않지만 꼭 닫히지 않아 피가 역류하는 경우를 '폐쇄부전증'이라고 한다. 흔히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위는 대부분 좌측 심장의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의 승모판막과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의 대동맥 판막 두 곳이다.



심대근  
 코모병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과장

**▲ 판막 질환의 원인?**  
 판막 질환의 원인으로는 태어날 때부터의 구조적 이상이 동반되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대개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판막이 후천적으로 구조적인 병변이 발생되어 기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막 질환의 흔한 원인으로 소년, 청소년 시기에 앓았던 목감기의 후유증으로 류마티스열이라는 질환을 경험하고 난 뒤 심장 판막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처음에는 고열과 피부발진 혹은 관절통으로 입원하게 되나 이러한 증상이 호전된 후 일부 환자에서

심각한 후유증으로 심장 판막 또는 판막의 구조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판막의 손상이 초래되게 된다. 대개 20대 혹은 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여성들은 임신 및 출산 전후로 심한 호흡곤란을 겪기도 한다. 이외의 원인으로는 퇴행성 질환, 세균에 의한 심내막염에 의한 이차적으로 판막이 새거나 좁아지는 경우, 매독이나 말관 증후군 등에 의한 대동맥 폐쇄부전증, 심근 경색증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승모판 폐쇄부전증, 그리고 판막의 선천적인 기형에 의해 빠르게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 등도 심장 판막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심장 판막 이상 시 증상은?**  
 심장 판막에 구조적인 이상이 발생하여도 곧바로 일상생활에 지장

을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다. 인체의 모든 장기가 그러하듯 심장 기능에도 여분이 많으므로 판막협착증 혹은 폐쇄부전증이 생긴 경우 심장은 그 나름대로 병적 상황에 적응하여 증상 발현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보상 기전이 있다. 특히, 여성들은 평소에는 모르고 지나다가 임신 출산 전후로 심한 호흡 곤란을 겪으면서 판막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게 되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곤란이다. 처음에는 심한 운동이나 움직일 때만 숨이 찬 것을 느끼다가 점차 악화되면 안정 시에도 호흡이 가빠지고 땀으로 누워서 잠을 못 자게 되어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 때에는 기침 및 가래가 심하며 흉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 대동맥 판막 질환과 치료는 무엇인가?**  
 대동맥 판막 질환도 승모판과 마찬가지로 협착증이나 폐쇄부전증이 생길 수 있고, 발생 시 증상도 비슷하게 나타나게 된다. 대동맥판 협착증인 경우에는 인체로 피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문이 막혀 있는 것이므로 다른 판막 이상과는 다르게 호흡 곤란의 증상과 함께 실신, 협심증 증상 혹은 급사의 위험성이 더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심초음파와 검사가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대동맥 판막 질환은 불행히도 승모판 질환과 같이 치료법이 다양하지 못해 약물치료가 아니면 대부분 판막 치환술을 받아야 한다.

**▲ 꼭 수술을 해야 하나?**  
 판막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적당한 수술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판막 질환이 있다고 하여 꼭 수술만을 생각할 것은 아니며 담당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자제언

뜨거운 여름, 음주운전주의보

폭염주의보를 넘어 폭염경보까지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술 소비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잔은 더위를 식혀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또한 날려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한잔 두잔 마시던 술은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여름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여름철에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16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그중 13명은 사망하고 956명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북경찰청가동대 직원들은 매일 전주, 정읍, 무주 등 전북권내 지역으로 지원을 나가 지역경찰과 함께 지속적인 음주 및 교통사고 예방과 홍보,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음주운전 근절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술자리에 갈 때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술을 마셨을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올바른 음주습관을 갖고, 직장 동료나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만류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제3의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이다. 즉, 음주운전하지 않는 안전한 운전습관과 국민 모두의 음주운전 근절 동참만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김윤철 전북형 경찰관기동대 순경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성인보다 돈이 풍족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값싼 군것질거리들은 하루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앞에 자리 잡은 문구점과 분식집 등에서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먹거리 음식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7080세대라면 '추억의 불량식품'을 어릴 적 한 두 번 먹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량식품들은 어떻게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유해성 식품 등은 어린아이들이 먹었을 경우 신체 발달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 위협한다. 그러나 한정된 경찰인력만으로 점점 교묘하고 은밀하게 제조 및 유통되는

불량식품을 모두 단속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경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불량식품을 제조·판매 하는 것을 발견 한다면 국번 없이 112(경찰),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식품안전파수꾼'을 통해 신고 해주기 바란다. 먹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된 만큼, 불량식품을 더 이상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국민들 모두가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자로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먹거리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박재원 전북형 경찰관기동대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전북도는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도 강하고 힘차게 그래야 한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 나면 지역 발전 현안사업들이 지지부진해서이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역대 정부가 예산 편성에 인색한 탓이 크다고 해도 이대로는 곤란하다. 매년 같은 말만 되뇌어서는 안 된다. 고장의 오랜 낙후는 도민의 정서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북도 또한 그 책임이 작지 않다. 도내에 유명무실한 사업들이 적지 않다. 말로만 현안사업이지 정채된 사업들이 아닐 수 없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마저 그러니 다른 사업들이야 오죽하랴. 그러니 도민의 뜻과는 맞지 않는 정책의 귀 시끄러운 소리가 이따금씩 나오는 것이다. 정말이지 이대로라면 새만금 사업의 최종 목표인 '아리울'은 현재 살아 있는 세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대로는 아들 세대가 주역이 될 때쯤에도 어려울 것이다. 손자 세대가 주역이 되는 때쯤에나 가늠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이다.

언젠가도 지적했거나 전주의 탄소클러스터 사업과 익산의 식품클러스터 사업도 지지부진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북도의 청사진대로라면 진작에 끝났어야 할 사업이 아직도 추진하는 모양새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전북도의 관계자들은 못마땅해 할 지도 모르겠다. 국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거북이 움직인다는 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 한참 낙후돼 있다. 발전의 보폭이라는 게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다. 전북의 오늘은 지난 사오년 전과 비교해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전북도는 현안사업의 힘찬 추진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겠다.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한다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나 전북도는 매진해야 한다. 전북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북도의 브레인들이 예산 증액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폐쇄와 폐교가 전북의 현주소인가

전북도가 요즘 뭐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말로는 제뭇 핑기다. 지역 발전이다해서 목소리가 크기는 한데 실속이 하나도 없다. 정말이지 이대로는 곤란하다. 얼마 전의 일만 해도 그렇다. 짧은 미취업자들은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게 일상사가 되고 있는데 전북도의 일자리 정책이 전국 1위라고 큰 상까지 받았으니 어리둥절한 지경이다. 저번의 군산조선소 폐쇄와 이번의 서남대학교 폐교 수순밟기를 언급하자면 전북의 낙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전북도는 지역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폐쇄와 폐교가 우리 전북의 현주소인가라는 도민의 물음에 전북도는 답해야 한다. 폐쇄 문제에 손 털고 폐교 문제에 손 털면 어찌되는 것인가. 이라고도 지역의 미래 발전 운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도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이 시세를 파부로 느끼는 게 도민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결코 틀린 지적이 아니었지 않다. 지금 도지사와 고위 공직자들이 확인해줘야 할 게 있다. 골칫거리가 산적해 있는데다 새로

운 문젯거리가 터지고 있는데 앞 전히 있어서는 안되겠다. 전북도는 팔소매를 걸어부치고 나서야 한다. 서남대의 회생을 위해 교육부와 담판을 해야 한다. 설립자의 능력 부족과 비리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으니 어떻게 될대로 되겠다 라는 식으로 바라 봐선 안 된다. 전북도는 난관에 응전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제뭇을 찾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게 말짱 핑이 되어서는 안되겠는데 말이다. 도지사는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제뭇을 제대로 옮겨주는 게 미래 비전에 힘을 실는 거라는 걸 말이다. 그게 없다면 앞으로는 다른 광역 시도들과 비교해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 뻔하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제뭇을 핑기는 역적스러움을 보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발전상과 비교해보면 이쪽은 낙후와 불만의 연속이다. 도내 거주 인구가 시군에 따라서 답보 상태이거나 줄고 있는 이유를 전북도는 아프게 짚어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